
-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
공 무 국 외 출 장 보 고 서
- *Malaysia and Singapore* -



2019.1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목 차

I. 출장개요	1
1. 출장국가	
2. 출장기간	
3. 출장목적	
4. 시찰단 명단	
5. 출장일정	
II. 주요연수내용	4
1.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관광센터(Malaysia Tourism Centre)	
2. 말레이시아 : 포트 클랑(Port Klang)	
3. 말레이시아 : 겐팅하일랜드(Genting Highland)	
4. 말레이시아 : 푸트라자야 신도시(Putra Jaya)	
5. 말레이시아 : 페트로나스 타워(Petronas Twin Tower)	
6. 싱가포르 : 뉴워터 비지터 센터(Newater visitor centre)	
7. 싱가포르 : AWWA 가족복지시설(AWWA Family Service centre)	
8. 싱가포르 : 파크로얄온피커링(Parkroyal on pickering)	
9. 싱가포르 : 보타닉가든(Botanic Garden)	
10. 싱가포르 : 도시재개발청 시티갤러리(URA City Gallery)	
11. 싱가포르 : 가든스바이더베이(Gardensbythebay)	
III. 종합의견	28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공무국외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 출장국가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 출장기간 : 2019. 10. 27. ~ 11. 1.(4박 6일)
- 출장목적
 -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구 특성에 따라 관련 도시 및 관계기관방문으로 도시 비전과 도시계획을 공유하고 도시 재생 방안 모색
 - 인천 신항 개항, 크루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골든 하버 조성 등 해양관련 인프라가 조성됨에 따라, 글로벌 해양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이와 관련한 기관 및 지역 시찰로 우수 정책 벤치마킹
 -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도시 시찰로 수변녹지대 공원 및 문화 공간 조성, 해양레저 스포츠 시설 조성 현황을 비교시찰하고 우리 구 정책 반영 및 관광·쇼핑 연계 방안 모색
 - 선진 복지 시설 방문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인으로 이어지는 지역 사회기반 우수 복지 사례 수집 등

□ 시찰단

연번	소속	직 위	성명	비고
1	연수구의회	의 장	김성해	
2	〃	운영위원장	장해윤	
3	〃	기획복지위원장	기형서	
4	〃	자치도시위원장	최대성	
5	〃	의 원	김정태	
6	〃	의 원	유상균	
7	〃	의 원	이강구	
8	〃	의 원	이은수	
9	〃	의 원	이인자	
10	〃	의 원	정태숙	
11	〃	의 원	조민경	
12	의회사무국	직 원	조재호	
13	〃	직 원	박정애	
14	〃	직 원	김진영	
15	〃	직 원	임형준	
16	〃	직 원	김범진	
17	송도관리단	직 원	오영근	
18	출산보육과	직 원	손유란	

□ 출장일정

월 일 (요일)	방문도시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10.27(일)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30 인천출발(KE671) 22:25 쿠알라룸프 공항 도착
10.28(월)	말레이 시아	<현장시찰> 젠팅하일랜드	○ 동남아 최대 관광지 성공 요인 벤치마킹
	〃	<현장시찰> 페트로나스 타워	○ 도시 우수 랜드마크 사례 시찰
		<현장시찰> 푸르라자야신도시	○ 수변공간 조성, 습지 조성 사례 벤치마킹

월 일 (요일)	방문도시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10.29(화)	말레이 시아	<기관방문> 관광센터	○ 말레이시아 관광 우수사례 시찰
	〃	<기관방문> 항만청	○ 동북아물류거점 발전 요인과 항만 활용 방법 비교 시찰
10.30(수)	싱가포르	<기관방문> 뉴워터비지터센터	○ 수질보전 우수사례 벤치마킹
	〃	<기관방문> AWWA가족 복지시설	○ 선진 복지 우수 시설 운영 형태 파악
		<현장시찰> 파크로얄온 피커링건축물	○ 도시건축물 친환경 시스템 적용 벤치마킹
10.31(목)		<현장시찰> 보타닉가든	○ 세계문화유산 지정 공원 벤치마킹
	〃	<기관방문> 도시재개발청 시티갤러리	○ 도시 계획 벤치 마킹을 통해 도시 재생 및 도시 발전 방향 모색
	〃	<현장시찰> 가든스바이더베이	○ 싱가포르 최대 인공정원 벤치마킹
11.1(금)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30 싱가포르 출발 · 05:45 인천공항 도착 	

II

주요연수내용

말레이시아

- 수 도 :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인 구 : 3,194만 9,777명 (2019년 현재)
- 위 치 : 말레이반도 및 보르네오섬 북부
- 기 후 : 고온 다습의 열대성(21℃~34℃)
- 면 적 : 329,733km² (한반도의 약 1.5배)
- 주요도시 : 쿠알라 룸푸르(Kuala Lumpur), 페낭(Penang), 조호바루(Johor Bahru), 쿠칭(Kuching), 코타키나바루(Kota Kinabalu)
- 주요민족 : 말레이(61%), 중국계(29%), 인도파키스탄계(9%)
- 주요언어 : 말레이어(공용어), 영어, 중국어
- 종 교 : 회교(국교), 불교, 기독교, 기타
- 말라카 왕국은 14세기 말 파라메스와라가 건설한 후 15세기 아랍인, 중국인, 인도인들의 무역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 그러나 1511년 포르투갈에 의해 말라카가 함락되면서 잔존세력들은 조호르(Johor) 지역으로 이동하였고, 17세기는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말레이반도를 두고 대립하는 시기였음. 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말레이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1786년 페낭을 점령한 후 조지타운(Georgetown)을 건설함. 제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군정하에 있다가 종전 후 다시 영국보호령 말라야 연방이 되었고, 1963년 영국 식민지였던 동말레이시아의 사라왁과 사바, 싱가포르까지가 독립 연방국 말레이시아로 되었으며, 1965년 싱가포르가 분리되어 독립함. 말레이시아는 동서 문화의 네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중국, 인도, 이슬람 문화와 동남아시아 고유의 문화가 융화, 공존하면서 독특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어서 들어온 서구 문화도 말레이시아 문화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함.

1. 말레이시아 관광센터(Malaysia Tourism Centre)

- 방문일자 : 2019. 10. 29.
- 위 치 : 109, Jalan Ampang, Kuala Lumpur, 50450
 Kuala Lumpur, Wilayah Persekutuan Kuala Lumpur
- 면 담 자 : Denny

○ 1935년에 광산 대부호에 의해 세워진 본 건물은 1941년에 영국제 국주의 시대에 사용되다 1945년에는 일본이 점령하여 사용함. 2차 대전 이후에서야 말레이시아 정부가 인수하여 정부청사로 이용하였고, 1988년 관광안내센터로 개보수 되어 관광객들이 찾아와 역사적인 건물을 둘러봄과 동시에 말레이시아 전역의 관광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음.

▶ 지역 관광정보 제공 뿐 아니라, 민속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24시간 관광경찰제 운영하는 사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참고할 만한 우수 정책임

〈주요질의 및 응답〉

Q : 쿠알라룸푸르의 핵심관광자원은 무엇인지?

A : 우리의 관광자원은 가장 자랑스러운 페트로나스타워 및 KL타워가 있으며, 말레이시아 전체로는 동쪽에는 터헌티엔 섬과 힌두교 템블이 있음.

Q : 이 센터가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전체에 이와 같은 관광센터가 있는지

A : 관광센터에서는 마이스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고, 13개주가 개별적으로 본 센터와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며 관광 산업을 지원하고 있음



관광센터 담당자 브리핑 및 질의응답, 관광경찰 운영센터 설명 청취



관계자 기념품 전달



관광센터 앞 기념촬영

2. 포트 클랑(Port Klang)

- 방문일자 : 2019. 10. 29.
- 위치 : 202, Jalan Pelabuhan, port klang 42005, kawasan 14, 42000 port klang, Selangor, Malaysia
- 면담자 : Mohd Shah Nas Mohd Fawzi, Privatization & Investment Manager
Shaiful Nazri Shaari, Asst. General Manager

○ 포트클랑은 말레이시아 교통부산하의 기관으로 서쪽항과 북쪽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레이시아 기원인 말라카 위쪽에 위치함. 항만청은 1960년대 말라야 철도청 산하 기관으로 시작되어 1972년부터 포트클랑 항만청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음.

○ 물동량의 98.5%가 카고 선적물량으로 전세계 130개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5대양 6대주에서 대량의 물량이 유입되고 있고, 항만기획, 단속, 자산관리, 무역, 포트 기능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은 리워드 벌크, 드라이 벌크, 브레이크 벌크와 크루즈 터미널이 있음.

○ 현재 항만은 30년 동안 민영화 임대로 운영되며 자유 무역항으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항만청은 소방, 항해, 안전 시설, 관세와 자산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함. 그리고 민영사업자가 최적일 상태에서 항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편의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포트클랑은 전세계 선적량이 2018년 12위를 기록하였으며, 상하이 1위, 부산은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이커머스 사업이 확장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항만 시설 구축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세미 자동화 시설을 구축중이고, 그린필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환경친화적인 항구 운영을 기획하고 있다고 함.

▶ 포트클랑은 아시아와 유럽이 아프리카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무역항으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해외 구매가 활발해짐에 따라 항구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더 확대되는 시대에 인천 신항의 역할 또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임. 말라카 해협의 중심 항만으로서 긴 역사동안 시대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 온 포트클랑은 우리 신항 발전 방향 설정에 교훈과 지표가 될 것임.

< 주요질의 및 응답 >

Q : 항만으로 유입되는 화물차가 많아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출차하는 화물차 운영 방식과 크루즈 운영이 항만 운영에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A : 항만에서 운영하는 화물차는 교통체증을 유발하므로 안쪽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주차하도록 하고 있고, “NPK” 라고 하는 포트 클랑 시티 관할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음. 크루즈 터미널 정박지는 3곳이 있으며, 민영업체에서 크루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음.

Q : 싱가포르 항만과 근거리 지역으로, 포트 클랑과의 경쟁관계가 어떠한지

A : 싱가포르와 경쟁관계이고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싱가포르 항만과 포트 클랑이 선적 라인이 다르며, 서로 보완적으로 화물 처리를 하고 있고, 역할이 다름.



항만청 관계자 ppt 시연, 질의응답 및 기념품 전달



항만청 관계자 기념품 전달

항만청 관계자와 기념촬영

3. 겐팅하일랜드(Genting Highland)

- 방문일자 : 2019. 10. 28.
- 위 치 : Genting Highlands, 69000 Genting Highlands, Pahang

- 쿠알라룸푸르 시내로부터 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겐팅 하일랜드는 “구름위” 라는 뜻으로, 이름에 걸맞게 해발 6000피트 산정에 위치하고 있음
- 1965년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테마도시로 공사만 5년이 소요되었으며, 가장 유명한 카지노를 시작으로 10,000개의 객실과 6개의 호텔을 갖추고 있음. 동남아시아 최장거리를 자랑하는 케이블카, 야외 테마파크와 풍부한 오락시설이 조성된 말레이시아 최고의 복합 휴양지임.
- 겐팅하일랜드는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어 케이블카나 차로 이동하여야 하며, 높은 해발에 위치하고 있음에 따라 운무에 쌓인 광경은 도착하기 전부터 관광객을 설레게 하는 데 충분하였고, 대형스크린을 통한 유명 애니메이션 상영과, 형형색색의 놀이 기구 들은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함. 트렌드에 따라 관광객을 사로잡기 위해 변화한 노력이 곳곳에서 보임.
- ▶ 송도골든하버는 송도동 300-6번지 국제여객터미널 복합지원 용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호텔, 쇼핑몰, 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할 계획이며, 우수한 바다 조망권을 가진 골든하버를 공항, 항만과 연계한 세계적인 해양관광벨트로 조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외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겐팅하일랜드는 우수한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임



겐팅하일랜드 리조트



산정상 리조트 및 테마파크 이동 케이블카



테마파크 전경



애니메이션 상영 대형스크린

4. 푸트라자야 신도시

- 방문일자 : 2019. 10. 28.
- 위 치 : Jalan P5, Presint 5, 62200 Putrajaya,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 남쪽 약 25km에 위치한 말레이시아 신행정수도로서 도시 전체가 철저한 계획하에 세워졌으며, 우리나라 행정수도인 세종시의 모델이기도 함. 1999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과밀화 및 혼잡을 줄이기 위해 2010년 정부 청사를 이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마하타르

빈 모하마드 전 총리의 아이디어로 설립되어, 연방정부의 행정수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음.

▶ 도시의 3분의 1이 인공 호수와 녹지,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슬람 양식의 독특한 조형물과 신도시가 어우러져 있으며, 푸트라자야만의 개성을 갖추고 있음. 관광과 행정도시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도시 및 공원 조성 사례는 앞으로 도시 조성 시 참고할 만한 모범 사례임.



푸트라자야 수변공원 조성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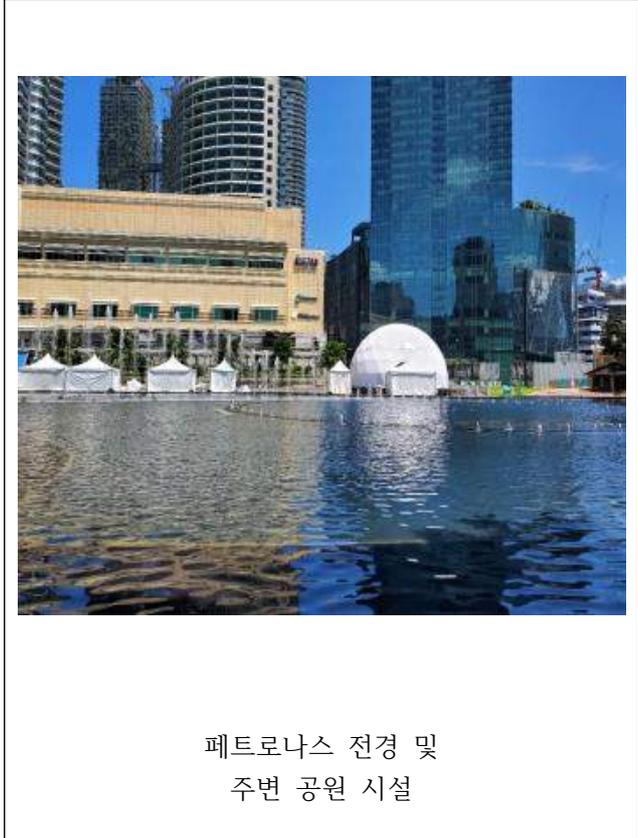
푸트라자야 총리 관저
(이슬람사원을 모티브로 건축함)

5. 페트로나스 타워

- 방문일자 : 2019. 10. 28.
- 위치 : Concourse Level, Lower Ground, Kuala Lumpur City Centre, 50088 Kuala Lumpur,

○ 452m, 88층 높이의 쌍둥이 빌딩으로 1998년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나스가 건설했으며, 오른쪽 1관은 일본 건설사, 왼쪽 2관은 한국 건설사, 스카이 브리지는 프랑스 건설사에서 시공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임

▶ 말레이시아 대표적인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인 페트로나스 타워는 이슬람사원을 모티브로 하여 건축한 현대식 건물로 전통적인 양식에 현대적이미를 가미한 외관과 주석을 연상시키는 마감으로 건물 특유의 위용을 자랑함. 건축 후 20여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말레이시아에 오면 한번쯤 꼭 봐야 되는 랜드마크로서 전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유를 공감할 수 있었으며, 도시 건축물의 미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됨.



페트로나스 전경 및
주변 공원 시설

싱가포르

- 수 도 : 싱가포르(Singapore)
- 인 구 : 580만 4,337명 (2019년 현재)
- 기 후 : 고온다습의 열대성기후, 년평균 26.6℃
- 면 적 : 692.7km²(서울시 605.4km²)
- 주요도시 : 도시국가
- 주요민족 : 중국계(77.5%), 말레이계(14.2%), 인도계(7.1%), 기타(1.2%)
- 주요언어 : 영어, 말레이어, 중국어, 타밀어
- 종 교 : 불교(53.3%), 회교(15.3%), 기독교(12.7%), 힌두교(3.7%)
-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이 무역 거점으로 개발한 도시였으며, 1963년 현 말레이시아에 포함되었다가 1965년 말라야 연방에서 탈퇴하여 현재 국가가 됨. 19세기 초 건설 당시 유럽인·인도인·말레이인 등 종족별 주거지로 나뉘었으며 그 영향이 아직도 남아 있고, 지정학적으로 동서교통의 중요 지점에 자리잡고 있어 자유무역항으로 번창함. 또한 동남아시아의 중심에 있었던 탓에 1832년에는 영국의 해협 식민지였으며, 1942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의 식민지였고, 이후 영국 식민지로 환원되었던 싱가포르(싱가폴)는 1959년 영국 연방내 자치 정부를 설립했으나, 1963년에 말레이시아 연방으로 통합됨. 1965년에야 비로소 독립 공화국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117번째로 유엔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그린 & 크린 시티'로 불리는 머라이언의 나라 싱가포르(싱가폴)는 14세기경에 수마트라 섬의 한 왕자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상한 동물을 보고 사자로 오인하면서 '싱가푸라(Singa Pura, 사자의 도시)'로 불리워지다가 영국인들에 의해 싱가포르로 불리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함.

1. 뉴워터 비지터센터(Newater visitor centre)

- 방문일자 : 2019. 10. 30
- 위치 : 20 Koh Sek Lim Rd, 싱가포르 486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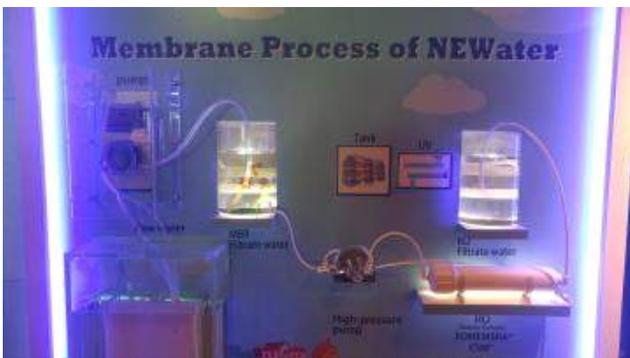
○ 뉴워터 비지터 센터 운영기관은 PUB(Public Utilities Board)로 물 재이용 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학습센터 운영 및 인공생태 호수를 비지터 센터에 조성해 둬. 싱가포르는 담수호가 없어, 빗물이 유일한 식수원으로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국가 차원에서 물 자원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식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빗물 저장, 하수재활용, 해수 담수화 그리고 인접 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의 수입 등 4가지 전략으로 물 부족에 대응하고 있다고 함.

○ 1998년 PUB와 환경수자원부가 협력을 통해 기존의 정수 방법 외에 마이크로필터, 역삼투압, 자외선 기법 등을 사용하여 오폐수가 음용수로 전혀 손색이 없는 “새로운 물(NEW WATER)를 탄생시켰으며, 물 부족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거대 하수관 설치 프로젝트인, DTTS(Deep Tunnel Sewerage System)를 진행하고 있고, 1단계는 2008년 완공하였으며, 2단계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 이는 하수와 우수를 뉴워터 정수처리 시설로 보내 음용수로 처리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며, 말레이시아와의 장기 물공급 협정 만료(2062년) 이전까지 100% 자급자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함.

▶ 물부족으로 많은 시련을 겪은 싱가포르이지만 현재는 고도의 물 정화시설로 오히려 말레이시아로 물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공한 사례는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최근 발생한 수돗물 사태와 향후 천연 자원부족을 생각할 때 싱가포르의 하수처리방식은 향후 관련 시설 개발 시 참고해야 될 우수 모범 사례임.



센터 관계자 뉴워터 처리 과정 및 싱가포르 물 이용 과정 설명 청취



뉴워터 여과 과정 (Membrane Process)



역삼투 시스템(Reverse Osmosis System)

2. AWWA 가족복지시설

- 방문일자 : 2019. 10. 30
- 위 치 : 107 Towner Rd, Singapore 321107
- 면 담 자 : Sandra Tan Assistant director

○ AWWA 가족복지시설은 정부기관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이며, 싱가포르에는 국가주도 사회복지시설보다 민간주도 사회복지서비스에이 전시가 많이 있다고 함. 이 시설은 1970년에 설립되어 49년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역사가 깊지 않은 나라로서 1965년에 독립하여 맨처음 이 단체를 설립한 것은 여성들이었으며, 여성들 위주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지금은 다양한 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처음 나라가 세워졌을때는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1970년 처음 AWWA가 세워졌을때는 불평등으로 인해 소외된 계층들이 사회에서 자신들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 목표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함.

매년 1만6천여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취학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추가 요구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 교육 및 장애 지원, 저소득 가정지원, 간병인, 노인 치매 및 재활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정부의 사회 복지 역할은 사회 복지 우선 순위와 그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며, 비영리단체는 정부 정책에 맞추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함.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큰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볼 때 비영리단체의 역할 부여 및 지역 사회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임.

< 주요질의 및 응답 >

Q : 시설 운영에 기부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정도인지

A : 1년에 8억 정도를 기부받아 운영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회가족개발부(Ministry of Social & Family Development),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국가사회복지위원회(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s), 일반 재단(Foundations and Private Sector) 등과 협업과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고, 운영비의 99%는 사회가족개발부와 국가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음

Q :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이 모두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A : 현재 복지시설에는 7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두 사회복지 자격을 가진 것은 아니며, 교사, 간호사 등 다양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특별한 자격을 받아 활동하고 있음

Q : 장애인만을 위한 복지시설이 따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가족 중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기가 무엇인지

A : 복지서비스 중심이 특정 서비스 분야로 세부화 되어 있는 게 아닌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장애인만을 위한 세부화된 시설은 운영되지 않으며, 장애와 비장애인 함께 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 또한 싱가포르 처음 독립한 시기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으며, 이를 통해 가족을 위한 복지가 발달됨.

Q :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계층의 복지가 현 시설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이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지

A : 15개 센터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상호 연계가 필요한 경우 협조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Q : 사회복지서비스나 재정을 비영리단체 등을 거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지

A : 비영리단체에서 지원이 안되는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하나, 비영리 단체를 통한 지원이 훨씬 다양하고 혜택이 많아 비영리단체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활용함



AWWA 가족복지시설 외관 및 내부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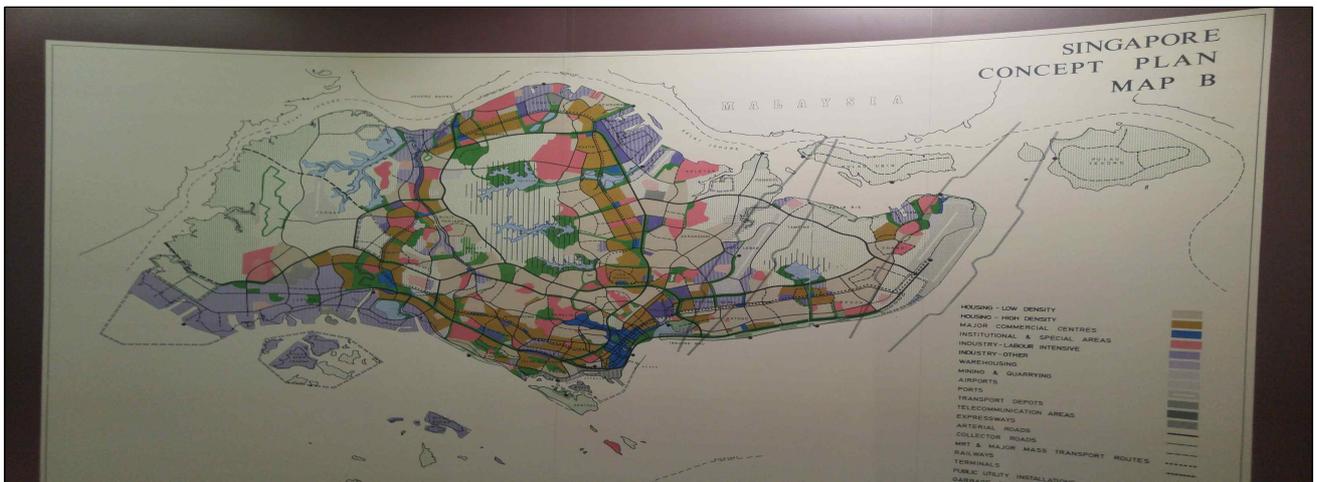


AWWA 가족복지시설 관계자 브리핑(PPT) 청취 및 질의응답, 기념품 전달 및 기념촬영

3. 도시재개발청 시티갤러리(URA City Gallery)

- 방문일자 : 2019. 10. 31
- 위 치 : 45 Maxwell Road, The URA Centre, Singapore 069118
- 면 담 자 : Jean Wang

○ URA(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은 1974년 국가개발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어, 1000여명의 전문 인력을 통해 싱가포르 개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싱가포르 도시계획은 크게 2가지로 나누며, Concept Plan(10년 계획, 향후 40~50년까지를 바라보는 장기적인 토지이용과 교통에 대한 개발 계획으로 대표적으로 신도시, 공항, 고속도로, 지하철 등임)과 Master Plan(5년 계획,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으로 주택, 운송, 경제, 휴양 등 관련 분야를 지역별로 다르게 수립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의 용도, 용적률, 도시디자인 등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개발자에게 따르게 함)



싱가포르 콘셉트 플랜 MAP B

○ 1971년 Concept Plan에 매립 계획을 세우고, 국가 면적을 확대해 오고 있음. 또한 처음 Concept Plan 계획 시 도시 확장에 따른 교통 문제 등을 대비하기 위해 거주 지역 중심도시를 분산하여 계획함. 마리나 해협의 해수 담수화를 통해 싱가포르 물 부족을 해결하고자 댐 건설을 계획했으며, 싱가포르에서 쓰레기 투기에 높은 벌금을 매기는 이유도 상수도 오염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함.

○ 싱가포르는 수심이 깊고 태풍이 없으며 동쪽인 태평양과 서쪽인 인도양이 있어 세계적인 항구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하며, 대영제국이

싱가포르를 점령한 이유도 이러한 이유였다고 함. 마리나 베이와 싱가포르 강이 만나는 경계 부분을 넘어 싱가포르 강 쪽의 지역을 보트 키, 클락 키, 로버트슨 키라고 하며 마리나 베이와 가깝게 있는 지역이 보트 키, 더 안쪽으로 들어간 지역이 클락 키이고, 로버트슨 키는 클락 키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음.



▶ 처음 이곳은 대운반선이 드나드는 운하였으나, 대운반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양 산업이 되었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초대총리 리 관유가 이곳을 카페촌으로 개발하고자 계획하였으며, 현재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하고 전세계인이 찾아와서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관광명소가 됨. 이러한 노력으로 싱가포르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이루었고 도시재생의 큰 모범이 되어 세계적인 금융 및 비즈니스 중심지가 됨. 또한 마리나 베이 개발을 통해 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교통, 환경 등 좁은 국토에서 막강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도시 개발 계획과 그 실천력은 현재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지역 현안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향후 정책 방향 설정 시 우수한 가이드 라인이 될 것임.



도시 개발 시작전 전경



현재의 싱가포르 모습(머라이언상 앞)



도시변천사 도해 및 워터프런트 개발 계획 영상 시청



싱가폴 도시 재생 및 개발 계획 브리핑 청취 및 기념 촬영

4. 파크로얄온피커링

- 방문일자 : 2019. 10. 30.
- 위 치 : 3 Upper Pickering St, 싱가포르 058289

○ 피커링파크 로얄 가에 위치한 고급 호텔로서 “정원 형 호텔” 로 유명하며, 160,000평방 피트의 높은 테라스 정원을 갖춘 독특한 건축물임. 건물 전체가 잘 가꾸어진 식물로 둘러싸여 있어 건물의 고급스러움을 더 할 뿐 아니라, 도심 내 환경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건축물임.

▶ 싱가포르의 도시 개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건축물이 다양한 디자인으로 건축되고, 도시정책에 녹지공간 확보가 필수임. 이에 따라 친환경시스템으로 빗물을 저장하여 정원을 가꾸는 건축물이며, 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수 사례가 될 것임.



파크로얄온피커링 외관 전경



파크로얄온피커링 내부 시설

5. 보타닉 가든

- 방문일자 : 2019. 10. 30
- 위치 : 1 Cluny Road Singapore 259569

○ 싱가포르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지구에 지정되었으며, 영국령 시대에 만들어진 약 328km²의 부지에 3000종이 넘는 식물과 화려한 꽃들이 가득찬 커다란 자연 정원으로 도마뱀, 다람쥐 등 자연 그대로의 동식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크고 아름다운 정원임. 국립난정원, 진저가든이 있는 중앙 지구, 제이콥 발라스 어린이정원, 허브가든 등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음.

▶ 1822년 최초로 조성된 이후 재정난으로 문을 닫았으나, 화훼산업과 새로운 식물 개발 등 끊임없는 노력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영국의 Kew Gardens과 이태리의 Padua Gardens이후 세계에서 3번째로 등록된 가든이라고 하며, 일반적인 숲을 세계적인 정원으로 만든 저력과 정책마인드는 앞으로 구정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우수 사례임.



보타닉가든 내 오차드 가든



보타닉 가든 전경

6. 가든스바이더베이

- 방문일자 : 2019. 10. 31
- 위 치 : 18 Marina Gardens Dr, 싱가포르 018953

○ 가든스바이더 베이는 2012년 마리나 베이 지역에 “City in a Garde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예 및 정원 기술로 탄생한 인공 정원임. 25만가지 이상의 희귀식물의 서식지로서 전체 공원은 베이 사우스, 베이 이스트,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베이 센트럴 등 3곳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부적으로는 플라워 돔(Flower Dome), 수퍼트리 그로브(Supertree Grove), 월드 오브 플랜츠(World of Plants), 베이 이스트 가든(Bay East Garden), 클라우드 포레스트(Cloud Forest), 헤리티지 가든스(Heritage Gardens), 드래곤플라이 & 킹피셔 레이크스(Dragonfly & Kingfisher Lakes)로 나뉨. 수퍼트리 그로브는 최고 16층 높이의 수직 야외 정원으로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곳으로 보행자 도로가 있어 산책이 가능하며 야외 전망대에서는 환상적인 마리나 베이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고, 특히 밤에는 아름다운 조명과 불빛이 켜져 이곳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 줌.

▶ 수퍼트리에서 모든 물과 에너지가 자체적으로 순환되어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환경과 관광, 두가지 효과를 모두 갖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는 도심속의 매력적인 공원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서 배울 점이 많은 장소임.



가든스바이더 베이 전경 및 수퍼트리(Suppertree)

동남아시아 대표 항만
도시재생 모범사례 시찰

연수구의회 의장 김성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4박 6일 공무국외출장이 무사히 마무리 된 것에 함께했던 여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구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 및 장소를 방문하여 구정 발전을 모색하고자 선진지 여러곳을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잘 만든 관광 시설이 얼마나 많은 산업을 발전시키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 타워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랜드마크로서 견고한 모양의 쌍둥이 타워입니다.

그저 하나의 건축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독특한 모양의 타워와 타워 중간에 이어놓은 스카이브릿지는 주변이 관광시설의 밀집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만들었으며 대형 쇼핑몰, 공원 등의 편의·복합쇼핑·관광 시설들이 들어서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연수구의 송도도 무분별한 건축 또는 빠른 개발을 위한 규격화된 건축보다는 신중하되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연수구만의 도시경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건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포트 클랑을 방문하여 항만청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항만 중에 전세계 선적량 18년 기준 1위가 상하이, 6위가 부산, 그리고 포트클랑이 12위라는 항만 순위에 대한 설명과 포트클랑의 기능 및 운영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세계의 항만 중

최다 선적량 20위권에 인천이 없어서 우리 인천이 동북아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항만에 더욱 투자하여 더 많은 물량을 선적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국제적 위상을 제고 하는 데에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싱가폴에서 방문한 보타닉 가든, 가든스 바이더베이는 도심 속 녹지와 공원 조성의 모범사례로서 연수구를 생태환경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참고할 만한 장소였습니다. 328km²에 펼쳐진 정원, 50m에 달하는 슈퍼트리와 물과 에너지를 순환하는 시스템, 그리고 저녁에 시작되는 슈퍼트리쇼는 잘 조성한 공원과 녹지가 도심 속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가 되어 주변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의 리관유 총리 아이디어로 운하를 아름다운 카페촌으로 바꾼 클락키는 지난 시설들을 다 허물고 시행하는 급진적인 개발이 아닌 기존의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도시재생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 줍니다. 대운하였던 클락키가 강을 낀 아름다운 카페와 레스토랑으로 도시재생됨으로써 아름다운 관광지로 탈바꿈되어 싱가포르를 다시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매력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그 변화가 기존의 시설을 토대로 진행되어 전에 있던 운치와 분위기, 현대적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조화의미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연수구의 구도심을 재개발하거나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도시재생 전의 정취와 현대적 분위기의 조화의미를 어떻게 만들어 낼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도시의 깨끗함, 정갈한 분위기, 친절한 사람들, 전망이 탁 트인 도시의 인상은 싱가포르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전세계인들이 또 한번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꼽도록

만들어줍니다. 과태료를 크게 매겨 도시의 청결함을 지키고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의 모습을 계획해 진행하는 도시개발계획, 친절한 사람들과 정겨운 분위기는 연수구와 우리 한국이 싱가포르보다 더 뛰어난 도시와 나라가 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고 하였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며, 좋은 점을 가려 배워서 자신의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측면만을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 그들의 장점을 받아들여 벤치마킹한다면 더 나은 연수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연수를 위해 고생한 동료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PORT KLANG

장 해 윤, 김 정 태 의원

한나라의 정책과 발전과정은 그 나라의 지리적 위치, 정치, 사회 배경과 관련이 많고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방문한 말레이시아는 북쪽은 타이, 남쪽은 싱가포르, 서쪽은 말라카 해협, 동쪽으로는 남중국해를 경계로 하고 있다. 북서쪽은 남중국해, 동쪽은 셀레베스해, 남쪽은 인도네시아령 보르네오 섬과 접해 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 주요 항로 중 하나인 말라카 해협과 맞닿아 있어 매우 다양한 인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말레이인과 중국인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말레이시아 정치 제도는 입헌군주를 최고통치자로 하는 연방제국가로 전체 13개주 중, 9개 주는 주행정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세습통치자가 다스리고, 나머지 4개주는 연방이 위임한 수장이 통치하는 시스템이며, 연방

정부의 명목상 수장인 국왕은 9개주의 세습통치자 술탄들로 구성된 통치자협의회가 5년 임기로 선출하고, 연방정부는 외무·국방·치안·사법·연방시민권·재정·상업·산업·통신·교통을 주관하고 주(州)정부는 이민·행정사무·관세 문제들을 관할하고 있다고 한다.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이며 우리가 방문한 도시 또한 쿠알라룸푸르이다.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셀랑고르주(Selangor) 왕이 지배했던 지역으로 셀랑고르주는 행정과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상품이 주석으로 셀랑고르주 왕이던 라자압둘라가 주석 채굴꾼들에게 클랑벨리(Klang Vally)를 개방하면서 중국인들이 클랑 강을 거슬러 올라와 암팡 지역에서 주석을 채굴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쿠알라룸푸르의 시초라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포트클랑은 동남아시아 대표 항만이며 세계 12위 항만으로 말레이시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특별히 인천항만공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항만으로, 지난 4월에는 연수구에 위치한 신항을 방문하기도 한 인연이 깊은 항만이다.

포트클랑이 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지리적 위치도 크게 작용하였으며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포트클랑은 말레이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사이의 길이 약 800km 수심 약 25m의 좁은 해역으로 아프리카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역사적으로 항만의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화물처리를 포트클랑으로 집중시켜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포트클랑을 국가 최초 자유무역지대로

조성하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업체의 입주를 유도하였고 연간 수익은 19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역사가 깊은 포트클랑은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4차 산업 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이커머스 시대에 대응하고자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포트클랑의 목표는 미래에도 아시아 지역의 중심 항만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항만 시설 세미 자동화와 환경친화적 항만 시설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인천의 항만은 지금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인천신항을 중심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이 곧 개장할 계획이며, 크루즈 터미널과 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골든하버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시작되는 신항시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영향 뿐 아니라,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라 교통, 환경 문제 등 미리 대처하고 대비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된다. 포트클랑은 교통 혼잡을 대비하여 화물 차량은 별도의 지역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지역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신항시대에 동남아시아 최대 항만인 포트클랑을 방문하여 항만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제 첫발을 내딛는 신항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주역이 되는 항이 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기회에는 동일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소수의 멤버로 학술회의 참가, 친선교류 등의 방법을 통해 하나의 주제를 좀 더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원도심과 구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하며

기 형 서 의원

연수구의회 의원이 된 이후 처음으로 다녀오게 된 국외공무출장이 설레임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왔다. ‘모범적인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오리라’는 각오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고 11명의 의원과 함께한 4박6일의 일정은 참으로 빡빡하고, 고단하였다.

수변공원조성 및 공원 활성화 분야에서 ‘정책 방향 모색 및 구정 연계 총괄’이라는 목표와 책무를 가지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요일 오후에 출발을 추진한 이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외공무출장은 말레이시아에 밤에 도착하여 다음 날 아침 겐팅 하이랜드 방문으로 시작해서 싱가포르 가든스바이더베이로 마무리한 일정은 힘은 들었지만 보람 있는 시간들을 가졌다.

선정한 이유와 방문 목적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기관인 말레이시아 관광센터 방문과 예정된 기관 방문(싱가폴 투아스 쓰레기소각장)이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된 것은 아쉬움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11명의 의원이 함께한 시간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의정 활동을 통해 반목한 감정들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은 기대 밖 소득이었으며, 방 배정 멤버를 바꿔 가며 밤새워 대화하고 생활하며 새로운 면들을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앞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의 계기가 된 것 또한 이번 국외공무출장의 또 다른 성과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앞으로 의정활동 기간에 얼마나 더 국외공무출장의 기회를 가지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국외공무출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모든 일행이 사고없이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 본다.

연수구는 원도심과 송도국제도시라는 다소 상반된 도시 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정책 결정이나 추진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 이번 국외공무출장의 목표는 이러한 특성에 맞춰 관련 도시 및 관계기관들 방문을 통한 우수 정책 벤치마킹과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도시 시찰로 수변녹지대 공원 및 문화 공간 조성 현황을 비교 시찰 하고 우리 구 정책에 반영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두었다.

이번 출장에서 인상 깊었던 곳은 말레이시아의 겐팅 하이랜드, 항만청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가족복지 서비스 시설인 AWWA와 도시재개발청(URA :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방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도시재개발청은 싱가포르 정부가 10년 주기로 컨셉트 플랜(MAP B)을 세우고, 컨셉트 플랜을 기초로 5년 주기로 마스터 플랜 세워 국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는 기관이다. 도시계획에 에코 프렌들리 정책도 빼놓지 않고 적용하여 마리나베이샌즈, 건축물에 나무조성, 보타닉 가든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재생의 개념이 낡을 것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흐름에 맞춰 도시의 컨셉을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까지 내포하는 개념임을 새롭게 알게 된 기회가 되었다.

연수구 특히 송도국제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형성과정에 있으면서 인프라 구

축이 잘 되어 있기는 하나 녹지공간의 관리는 여러 기관으로 나누어 개발, 관리되고 있고, 그러한 구조속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 관리가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처럼 1개 기관에서 주도하여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나름대로 사전 준비를 하였으나 기관방문과 현장 방문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려다 보니 모든 곳을 시간을 갖고 충분히 둘러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며, 관광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수한 시설을 면밀히 둘러볼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30년을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

최대성 의원

4박6일 동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국외 출장 중 공식방문지 말레이시아 관광 진흥위원회는 현지사정으로 인해 방문하지 못하고 대신 산하기관인 말레이시아 관광안내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말레이시아의 관광과 교통 등 전반적인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관광안내 센터 내에는 전 세계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관광경찰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관광 중 일어날 수 있는 얘기치 못한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PORT KLANG은 말레이시아의 두 개 항만중 하나로 130개의 나라에서 많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전세계 12위항만입니다. 물동량은 환적이 62%,수출13%,수입13.6% 정도로 중국 상하이 1위 싱가포르 및 인도에 이어 부산이 6위, 하지만 지속발전이 가능한 나라로 항만이 부족하여 프로젝트를 통해 항만을 추가로 건설하고

4차 산업 발전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 운영에 중점을 두고 순항중입니다.

두 번째 방문지 싱가포르입니다

첫 번째 방문지인 말레이시아는 지역구분과 여러 주로 되어있다면 싱가포르는 지역구분이 없고 중앙정부 하나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여기서부터 싱가포르의 진가는 발휘 되는 것 같습니다. 공식방문지 도시재생개발청은 싱가포르 전체의 플랜을 잡고 추진 중인 중요한 기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1971년부터 싱가포르 매립지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아시지만 싱가포르는 송도국제 도시처럼 매립하여 만든 나라입니다.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하여 먹고사는 문제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고 현재는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싱가포르는 물부족 국가로써 말레이시아에서 대부분의 물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뉴워터팩토리 비지터센터를 방문하여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물을 재생하여 다시 먹는 물로 사용하는 기술을 직접보았으며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물의 소중함 미래를 대하는 싱가포르의 현 주소입니다. 싱가포르는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와 닮은 점이 많은 곳입니다. 송도의 워터프런트, 마리나베이 등 송도국제도시도 싱가포르의 좋은 사업을 접목하여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송도 국제도시를 포함 연수구는 계획도시로 무분별한 아파트건설보다는 환경과 더불어 현재 남아있는 부지에 대하여 개발플랜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는 5년에 한번 개발 플랜을 재수립합니다. 특히 송도 국제도시의 워터프런트와 주변개발에 대하여 조금 더 신중하고 30년 후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출장을 다녀오며 국민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연구수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귀한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 재검토로

세계속의 연수구로 거듭나길

유 상 균 의원

1. 말레이시아.

대한민국에 1,5배의 면적에 약 3500만명의 다민족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으며, 국민소득 1만달러로 동남아시아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를 중심으로 관광정책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으로 원유와 주석등 지하자원들을 수출하고 원유를 정제한 경유를 수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세종시에 해당하는 행정신도시를 수변에 만들어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항만청을 방문하여 카고들의 주차와 물류시스템을 질의하였고 항만지역 도시외곽 한적한 곳에 민영기업들이 주차장을 운영하고 혼잡한 항만지역에선 주차를 금하고 있었다.

가장 가까운 물동량 세계 2위인(대한민국은 부산이 세계6위) 싱가포르와 경쟁속에서 차별화전략을 모색 중이다.

2. 싱가포르.

대한민국 서울과 비슷한 면적에 도시국가, 500만 인구가 살고 있다.

물을 저장하기 어려운 현무암 지역이라 용수의 80% 가까이를 이웃 말레이시아에서 공급을 받고 20%는 자족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강이 도심 중심을 흐르고 있고 수상 택시들이 시간을 정해 운행을 하며 강주위에 고급 호텔과 관광상점들이 성업중이었고, 유관으로본 강의 녹조상태는 약 5급수 이상으로 혼탁했으며 악취가 났고 물속 생물들은 관

찾하기 어려워 수질 생태계를 교란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민들은 이 강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1.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론트 사업에 주민들에 요구를 적극 반영할 방법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2. 주민이 자랑스럽고 살기좋은 도시를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송도 신항과 송도 국제도시내에 화물주차장이 왜 필요한지 합리적인 답을 주민께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노력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4. 연수구의 도시경관을 재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연수, 인천광역시의 연수가 아닌 세계속의 국제도시 송도를 품을 연수구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변카페, 거리공연, 수상레저를 위한
워터프런트

이 강 구 의원

1. 클락키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워터프런트 1-1단계 사업 추진은 싱가포르 클락키 해변과 같은 수로를 품고 수변에서 문화를 즐기는데에서 시작 되어야 한다.



옛것을 활용해 문화를 입히고 역사를 보존하고, 그와 더불어 현대건축물을 가미해 공존하는 도시 문화 친수공간을 만든 대표적인 사례이다.

보트를 타는 선착장 주위로 수백여개의 카페들 놀이문화 공연문화가 어울어져 쇼핑몰을 활성화 하고 자연스레 인파가 모이는 곳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왜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싱가포르에 가면 꼭 맥주도 마셔보고 밤 문화를 즐겨보라고 했는지 알 것 같다.

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개발도 수변카페, 거리공연, 수상레저를 위한 보트 운영으로 워터프런트 1-2단계와 연결되는 기본축을 만들도록 경제청에 제안해 본다.

2.싱가폴 랜드마크 (마리나베이 워터프런트)





싱가폴의 상징이 되는 마리나베이. 그 주변을 두르고 있는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컨벤션센터, 세계 각국의 오피스, 수상 축구장, 머라이언 파크 워터프런트란 이런것이다라고 위용을 뽐낸다. 마리나베이 스카이 파크에서 바라본 싱가포르.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작다고 한다. 그렇기에 국가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모든 분야에 사활을 걸지 않았을까?

물길이 있고 그 물길로 모여드는 각종 산업 그 산업이 모여 관광테마가 되었다.

그런 기대에 싱가포르를 찾는 많은 이들이 인증 샷 하나로 전 세계에 SNS로 공유하는 자동홍보가 줄을 이어 더욱 더 세계적 명소로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또한 마리나베이 샌즈 스카이파크에서 바라본 워터프런트 야경은 어떠한가? 홍콩, 상하이, 두바이가 부럽지 않다.

더욱 놀라운건 여기에 더해 근접한 항만의 화물적치 공간 이전을 통해 워터프런트 공간을 기존의 2배이상 늘린다고 하니 미래의 모습이 더욱 기대된다.

송도워터프런트 1-2단계는 현재 용역중에 있다. 하지만 워터프런트 주변을 채우고 있는건 고급 오피스빌딩, 호텔, 리조트가 아닌 아파트 단지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목표설정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경관의 수준을 끌어 올리지 못하면 송도 워터프런트는 워터프런트라 할 수 없다. 지금 인천의 정책 방향은 어떠한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차 버리는 건 아닌가? 지금까지의 결정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는 차별화된 전략적 목표설정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워터프런트를 만들어야 한다. 출장을 통해 연수구의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한 건 송도도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경관 토론회 송도워터프런트 주변지역 경관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등을 통해 인천시와 경제청에게 주민의 뜻과 보고 경험한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워터프런트를 송도에서 구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3.페트로나스 트윈타워(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랜드마크)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1992년 공사를 시작해 1999년 8월 개관하였고 88층의 쌍둥이 빌딩이다. 말레이가 2020년에 선진국에 합류한다는 비전2020 계획을 상징하는 건물로 한국의 삼성건설(주)과 극동건설(주) 컨소시엄이 한쪽 타워를 시공하여 더욱 관심을 끈다.

전면 광장에 인공호수와 음악 분수 공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빌딩만이 아닌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어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

들이 찾는 제1의 명소이기도 하다.

국제도시 송도에서 추진하려다 멈춰진 151층 인천타워의 재추진을 열망하는 송도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찰지로 다녀 온 곳으로 인천시와 경제청은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타워가 고층빌딩 이상을 넘어 대한민국을 처음 맞는 인천공항 배후에 위치한 지리적 장점을 활용해 송도 워터프런트와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입주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내야할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주민과 함께 인천타워 건립 토론회 및 촉구 결의안 등을 통해 봄 조성의 역할실현을 다짐해 본다.

4.인공적 야심작 가든스 바이더베이

가든스 바이더베이는 바다와 싱가포르 강이 만나는 곳으로 수변공간에 인공적 공원을 조성해 관광상품으로 쉼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낮에는 싱그러운 나무와 식물들, 밤에는 인공적으로 만든 조형물과 야간 조명의 경관이 신비로움을 연출한다. 특히 스카이 워크는 인공트리를 공중에서 연결해 높이 30M에 연결 다리를 만들어 하늘을 걷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명소이며 공원 뒤쪽으로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위치해 환상 조합을 이룬다.

연수구 송도에는 센트럴파크가 주변 건축물들의 경관과 조화롭게 조성되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만 독창적인 요소는 부족하다.

새롭게 조성 계획 중인 송도워터프런트 수변 주변에는 테마와 개성 있는 공원조성이 필수적이며 주변 건축시설들과 조화로운 설계요구를 통해 연계될 집객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블루코어시티, R2부지 개발, 6.8공구 체육시설, 골든하버 수변공원등]

큰 미래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 공무국외연수

이 은 수 의원

심의회가 늦어진 관계로 시간에 대한 촉박함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대체로 연수구 8대 의원으로서 처음 다녀온 이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해외연수는 더 큰 미래도시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초대 총리인 툰쿠 압둘 라만푸트라 의 이름을 따서 푸트라자야라는 이름이 지어진 푸트라자야는 멀티미디어 슈퍼 커리터의 하나로 최근 개발된 사이버자여 근처에 있다. 1990년대 초기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오늘날 주요 랜드마크로 완성됨에 따라 근미래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으로 보여지는 곳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원도심을 접목시켜 생각을 해보게도 한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행정도시로 평가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도시의 롤모델이기도 하다. 일명 쌍둥이빌딩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높이 451.9미터에 88층 건물로써 1998년 준공된 것으로 우리나라와 일본회사가 공동으로 지은 것으로 자부심을 불러일키기도 하는 멋진 건축물로 그 또한 그 나라의 관광자원이기도 하다.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독립된 싱가폴은 노인복지시설인 AWWA의 사회복지정책과 현황에 대한 설명과 도시재개발청의 국가주도의 도시계획과 관리체계와 클락키 마리나베이 지역의 수변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연수구에 대한 문제점을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시민들의 힐링공간으로 도심 속 광대한 수목이 무성한 싱가폴 최대 식물원 보타닉 가든, 자연과 접목한 건축물의 예술성을 살린 파크로열 온 피커링 건축물은 건축물 하나하나에 생명감과 예술성을 살리고 있는 지금의 싱가폴은 건축물 심의회에 대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 수익의 목적으로만 지어온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싱가폴의 건축물. 우리도 백년 이백년가도 자부심으로 남을 만한 건축물로, 일석이조 그 이상 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도국제도시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개발

이 인 자 의원

<말레이시아 국외연수>

◇ 말레이시아 관광센터 방문

관광청이 HEAD QUARTER 인데 휴일인 관계로 관광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 관광센터에서 하는일은 관광에 대한 정보와 행사, 이벤트를 알려주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홍보와 이벤트를 하고 있다.

1.또한 GO CARE CITI SERVICE 로 관광객에게 무료로 버스운행을 하고 있다.

2.관광폴리스 운영- 관광객을 위하여 24시간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하여 관광객이 물품을 분실하였거나 사고가 났을 때 직접 대사관과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불편을 최소화 하게 한다.

◇ PORT KLANG 항만청 방문

1.주로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자유무역항이다. (free trade port)

이곳에서는 서쪽 항과 북쪽 항을 관리 감독한다.

컨소시움으로 30년간 임대해주고 민영화 사업이다.

2.이 포트항의 과제는 세미자동화 (반자동화) 로 에코그린 환경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해를 줄이고 화물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기위해 디젤을 LNG로 바꾸고 그린 녹색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이슈와 아젠다로 삼고 있다.

<싱가폴 국외연수>

◇ AWWA가족 복지 서비스 시설 방문

싱가폴은 1965년 독립하여 1970년 이 복지시설을 설립하였다 이곳은 비영리 단체로 최초에는 아시아 여성복지협회로 시작하여 책임보증주식회사 즉 정부에서 지정된 감리회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시민기부자들로 기부를 받아 면세 혜택을 주고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15개의 센터와 49개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용인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주로 이용인의 관리와 상담. 그리고 시민정부 APT를 보급하고 교육부와 연계하여 특수학교 교육과 가족이 함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혜자가 또 다른 이용인을 관리해주는 보완관계로 기부문화 정책에 큰 효과를 거둘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문화 정책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 마리나 베이와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방문

1. 싱가폴은 땅의 면적이 적어 주차장을 타워로 높이 건축하여 관리인만 두고 쿠폰을 발행하여 주차장의 불편을 없이 하였다. 또한 좁은 땅의 원활한 교통환경을 위하여 대중교통을 극대화 하고 자동차의 관세를 높이는 등 차량이용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싱가폴은 바다수심이 깊고 태풍이 없어 항만 컨테이너물류 기지로 세계 6위를 차지할 정도로 최적화 되어있다.
3. 도시전체가 관광자원인 나라가 싱가폴이다. 짧은 역사속에도 외국자본을 끌어들이어 재생 개발에 힘쓰며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보존지역을 위해 건물을 짓기 위해 좁은 국토를 넓히기 위해 매립을 하였다. 그럼에도 수변 옛나룻터를 재생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즐기고 볼수 있는 워터프런트를 자연스레 만들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처럼 건물이 꺾이는 특수한

기술로 불거리와 호기심으로 관광자원을 만들어 냈다. 그 건물을 쌍용건설이 지어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광자원이 될수 있는 워터프런트와 특수한 공법의 건물을 우리 송도에 짓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자본이 부족하면 외국 자본을 끌어 들어 개발하게 하고 좋은 송도만의 환경을 살려 워터프런트와 원래 계획했던 인천타워 151층짓고 인천의 관광 명소를 만들어 대를 이어 관광수입으로 이어질수 있는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말레이시아-관광폴리스 정책은 관광객의 안전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는 속히 반자동화를 완전자동화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공해와 매연배출을 줄이는 일에 전념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2. 싱가포르-우리나라에도 싱가포르처럼 관광자원이 될수 있는 송도 6공구 호수와 수변을 워터프런트와 특수한 공법의 건물을 우리 송도에 짓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인천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라도 나서서 공항도 가깝고 호수와 수변이 있는 송도국제도시에 좋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송도만의 환경을 살려 워터프런트와 원래 계획했던 인천타워 151층짓고 인천의 관광명소를 만들어 대를 이어 관광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관광대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도시개발 및 복지기관 시찰

정 태 속 의원

말레이시아 랜드 마크는 당연 쌍둥이빌딩이라 불리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라 생각한다.

역사가 매우 짧은 말레이시아연방은 자연이 아닌 인위적인 것으로 세계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내세우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다. 트윈빌딩은 유리 와 강철이 외벽을 감싸고 있어 녹슬지 않기 때문에 수 백 년이 흘러도 외관이 변함이 없을 듯 하였다.

또한 그 앞에 서보니 웅장함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 한국에(쌍용건설) 한 동씩 짓게 해서 서로 운동장이 아닌 건설현장에서 두 나라는 전쟁을 벌일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의 그런 발상에 씩씩한 마음이 들기도 하였다.

싱가포르는 해안가에 위치한 오페라 하우스와 여러 건축물들이 각기 모양을 달리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도시 전체의 모형을 각기 다르게 만들어 각 필지별로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심지어는 모양 형태까지 정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의 땅이 나라 땅이고 건물 또한 정부 주도로 지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건물의 모양을 짓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이것은 또한 도시 전체가 같은 모양의 건축물이 하나도 없는 이유일거다.

그와 달리 우리는 철저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의 원칙에 따라 오직 영리에 목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같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 된다

관광객의 숫자가 국민의 수 보다 더 많다는 도시국가, 거리엔 전봇대하나

없고 버려진 담배꽂초 하나 없는 싱가포르는 고온 다습한 기온 때문인지 건물 외벽에 푸른 식물로 조경이 되어있어 나라 전체가 잘 꾸며놓은 공원인 듯하였다.

건물이 도시의 공간을 형성하는 핵이고 대부분의 관광자원인 문화유적이 건축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후손에게 또 다른 자원이 될 수 있고, 한 도시의 잘 지어진 건축물들이 그 지역의 명소가 되고 지역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가치는 지대한 것이라 깨달았다.

물 부족으로 일찍부터 물 산업을 발전시켜온 싱가포르 국립수자원공사 산하 하수처리 수질관리 시설 “뉴 워터 ” 친환경 물 재생처리시설 하는 곳을 방문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워낙 협소한 국토 면적이 물을 저장 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 충분한 양의 식수 확보를 위해 최첨단의 바다 물 정수 플랜트도 건설하여 말레이시아를 비롯 주변국으로부터 담수를 수입하고 빗물, 하수, 물을 최고의 정수 설비를 이용 재생 정수한 후 국민들에게 공급한다.

가이드 말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조호르 해협에 가로놓인 국경 다리엔 상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에서 방문한 AWWA 가족복지시설은 1970년부터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는 역사 깊은 복지시설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조기 개입, 추가 요구가 있는 어린이 및 성인을 위한 교육 및 장애 지원, 저소득 가정지원, 간병인, 취약한 노인을 위한 건강 및 사회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

다. 구체적으로는 6개월~6살까지에는 교육과 지능개발을 지원하고, 7~18살 대상으로는 AWWA 학교 운영, 단체융합서비스를, 18세이상은 장애 재활 센터 운영 및 홈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족을 위한 패밀리센터, 그리고 시니어를 위한 치매주간보호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직 전 연령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거나 가족 전체에 대한 복지 욕구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기관이 없으며, 이러한 복지기관 운영이나 통합적인 관리 형태는 앞으로 정책 결정시 참고해 볼 만한 사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정 내내 건강함을 잃지 않고 남을 배려하며 동료애를 쌓아 온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수변시설 활용과

도시 경관의 중요성을 느끼며

조 민 경 의원

송도국제도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 국외공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수변시설 활용과 도시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경관의 중요성을 보고 느끼는 일이었다. 송도의 도시경관을 살리는 일이 곧 싱가포르, 상하이 같은 도시와 비견되는 송도의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이다.

도시경관을 위한 네 가지 정책 제안과 함께 보고 느낀 점을 서술하겠다.

1. 건물 디자인 경관 심의 강화
2. 간판 개선 사업 및 신규간판 설치 기준 강화
3. 가로수 특화 거리 조성 및 정비
4. 수변 공원 분수쇼, 레이저쇼 기획

1. 건물 디자인 경관 심의 강화

도시 경관과 관련해서 단일 이슈에 대한 송도 주민들의 민원 문자가 천통이 넘는다. 최근 포스코가 워터프런트 호수변 B3 블록에 회오리 디자인의 건물을 짓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파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민들의 큰 반발이 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포스코와 경제청이 송도를 싱가포르, 상하이처럼 만들겠다고 선전해놓고 평범한 도시로 전략시킨 일에 반발하여 연수구의회에 “1. 경관심의 강화 촉구 결의 2. 경관심의와 연수구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1.경관심의 강화 촉구 결의안은 동료의원이 준비중이고, 2. 경관심의와 연수구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국외공무연수 다녀오자마자 11월 14일 자치도시위원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다.

연수구의회 의원들이 국외공무연수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간다고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싱가포르의 도시경관을 제대로 보고 느끼고 오라는 요구가 있었다.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건물을 필두로 주변에 지어진 건물들의 디자인 하나하나가 다 다른데, 싱가포르는 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송도도 초기에 센트럴파크에 인접한 아파트를 지을 때의 디자인은 매우 멋진데 경관상세계획을 지키지 않게 되면서 이후의 아파트 디자인은 건설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되고 큰 특색 없이千篇일률적으로 지어지게 되었다.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는 건물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경관 심의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송도를 살리는 일이고 인천을 세계무대에 내놓아도 밀리지 않을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은 낮에도 멋있지만 밤에는 더욱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이였다. 머라이언 사자상과 마리나베이 샌즈호텔 앞은 사진 찍기 좋은 최적의 핫스팟이다. 이 호텔에서 보이는 전경을 인스타 등의 SNS에 올리기 위해 싱가포르를 찾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보면 도시 경관을 어떻게 갖춰나가야하는지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하는 부분이다. 밤이 되자 도시경관이 더욱 환상적으로 변했고, 수변에 들어선 상업 시설에는 사람들로 꼭 채워져서 활력이 넘쳤다.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친수공간을 살리려면 수변 건물을 하나 하나 잘 만들어야 한다. 싱가포르는 20층 건물 두 개보다 40층 건물 하나를 만들고 남은 자리에 녹지를 확보하는 전략으로 경관을 고도화하고 있다. 일명 두리안건물이라고 불리는 에스플러네이드 오페라하우스는 앞에 흐르는 강이 물곡선이기에 전체적인 디자인을 곡선으로 만들었다. 처음에 네모나게 건물을 만들려고 했는데 디자인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다시 설계해서 만드느라 오래 걸렸다고 한다. 지금 송도 주민들이 회오리 원안 디자인을 고수하며 송도의 경관을 걱정하는 상황과 똑같다. 송도에 컨벤시아 센터도 독특한 외관이 태백산맥과 파도를 형상화한 것인데, 그래서 송도를 상징하는 이미지 컷에 많이 활용된다. 송도에 클래식 무대만 허용하는 아트센터는 악기 울림 소리가 훌륭해서 연주자들에게 연주하기 좋은 무대로 정평이 나있다. 외관이 지휘자의 손 모양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 하는데, 디자인에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멋진 디자인의 건물 하나하나가 송도에 절실한 상황이다.

싱가폴에 마리나베이가 있다면 한국에는 송도가 떠올라야한다. 그런데 과연 송도가 그런 길로 가고 있는가. 초기 계획과 달리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계획들이 사라지거나 변경되고 있는데 정책입안자들이 땅을 매립해서 송도를 처음 계획할 때의 꿈을 잊으면 안된다.

2. 간판 개선 사업 및 신규간판 설치 기준 강화

위터프런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가의 디자인이다. 외국에 온 듯한 이국적인 거리가 국제도시의 경쟁력이다. 송도2동에 커널워크가 처음 조성되었을 때 이국적인 거리 모습이 CF에도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지금은 다른 상권들이 생기면서 수요가 분산된 측면도 있지만 상가를 채우는 업체부터 간판 디자인이 이국적인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 생기면서 과거 CF 감독이 담고 싶었던 거리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한다.

아트포레는 위터프런트 구간에 위치한 상가 건물로 외관 디자인을 신경써서 만들었는데, 간판 디자인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하다. 원도심은 간판개선사업을 계획했는데 시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연되고 있다. 기존에 설치된 간판을 개선하는 사업 하나로 정돈된 원도심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송도의 경우 새로 입점하는 상점들이 간판 디자인에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적은 예산으로 상가거리의 경관을 살리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여 아트포레만큼은 이국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도시 송도의 품격을 갖추는데 필수라 하겠다.

3. 가로수 특화 거리 조성 및 정비

말레이시아의 푸트라자야는 관공서 밀집지역으로 행정수도이다. 푸트라자야도 싱가포르 못지않게 수변공원과 녹지가 아주 잘 되어있다. 심지어 건물도 녹색식물로 뒤덮여있고, 가로수 정비도 눈에 띄게 아주 잘 정비되어 있다. 작년에 환경보전과에서 미세먼지 완화 등을 목적으로 건물외벽에 덩굴 식물을 설치하겠다고 추경에 올렸다가 의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사장된 사업이 있다. 미세먼지 방지보다는 도시경관을 좋게하려는 목적이 더 커보인다. 주변 건물 외벽이 녹지로 뒤덮여 있으니 더운 날씨에도 그 건물 주변만 시원한 느낌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연수구에서는 건물외벽 덩굴식물보다는 가로수 특화 거리 조성엔 신경을 쓰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어 보인다.

연수구는 비류대로 구간엔 네모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적이 있다. 가로수 전정 작업을 할 때 네모반듯하게 디자인을 넣어 잘라서 비류대로 구간을 지날 때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동화가 항상 생각났는데 실제로는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를 참고했다고 한다. 푸트라자야도 가로수에 디자인을 넣어 관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어차피 심고 가꿀 가로수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가로수 관리는 멋진 건물 하나를 짓는 것에 비해 예산은 훨씬 적게 들면서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4. 수변 공원 분수쇼, 레이저쇼 기획

말레이시아 쌍둥이 빌딩 뒤편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송도의 센트럴파크와 해돋이 공원이 생각났다. 해돋이공원에 있는 고래공원이 이곳 호수공원에

도 있었다. 고래모양 조각상과 분수쇼는 송도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해 보인다. 중구의 월미도에 가면 음악분수쇼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데 특히나 밤이 되면 음악과 함께 불빛이 켜진 분수쇼에 많은 시민들이 즐거워한다. 싱가포르에 갔을 때도 바다위 분수쇼하는 시간에 맞춰 밤에 배를 탔는데,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에서 나오는 레이저쇼와 함께 환상적인 분위기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은 관광 필수코스였다.

송도는 불꽃놀이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다. 막대한 예산의 필요로 일년에 한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불꽃놀이보다 매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분수쇼와 레이저쇼 등은 시스템과 규모를 초기부터 잘 갖추면 멋진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든다. 센트럴파크는 해수공원이고 해돋이 공원과 미추홀 공원과 물과 함께 하고 있는데 분수쇼는 당장에 추진해도 될만한 아이디어다.

끝으로, 집행부 공무원 두 명을 포함, 이번 국외공무에 참여한 연수구의 회 의원들은 다니는 일정마다 열정적으로 질의하고 참여하여 현지 관계부서와의 간담회 때는 질의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도시계획과 관광상품 개발과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자신한다.